

국방부, 5·18 北개입 “확인되지 않아”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재차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지만원·일부 자한당 의원 ‘북한군 개입’ 주장 과거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 모호한 답변해 “그때 입장과 달라진 것 없어…확인되지 않아”

관련 공청회에서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강연자로 나서 5·18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재차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 대신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답변으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지난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질의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달 광주광역시에서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앞서 국가 차원에서 6차례 조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도 관련 조사에 참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도 최근 지만원 씨에 의해 북한군 개입설이 거듭 불거졌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파문이 확산됐다.

한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 당시 광주 일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벌어진 인권 유린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

**다도해국립공원 탐방로
4개 구간 출입통제한다**
2월15일~4월30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12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4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비자~북암 횡간~사자바위, 섬기재~묘지 등 총 4개 구간 10.65km다.

국립공원사무소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직원 산불비상근무와 산불감시·진화 장비진전배치 등을 통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에 주력한다.

여수와 완도, 고흥 등 공원구역 내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체 산불감시원을 운영해 지속적인 산불예방 순찰활동에 나선 방침이다.

김영배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만큼 산행중 인화물질 소지나 산림 인접 농두렁·밭두렁 태우기 등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학사모 던지며 졸업 축하하는 학생들 12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 졸업식이 실시된 가운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복장을 갖춰 입고 학사모를 던지며 서로를 축하하고 있다.

5·18 관련 가짜뉴스 지만원 공청회 이후 급증

지만원 씨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재차 주장한 이후 극우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관련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들은 5·18 유공자를 ‘제주4·3희생자’ ‘독립유공자’와 함께 ‘대한민국 3대 사기집단’으로 평가까지 하며 왜곡·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

12일 한 극우 인터넷매체에서 5·18을 검색한 결과 성명서, 칼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을 훼손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의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이후 왜곡 기사는 급증했다.

공청회 이전의 기사는 이들에 한 번쯤은 생선했으며 주로 지만원 씨

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포함’을 요구하거나 ‘진두환 씨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이후 5·18공청회를 앞두고는 강연자인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 주장을 기사화 하며 여론을 만들었다.

지난 4일에는 ‘대한민국 사기꾼들의 3대 집단’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5·18 유공자를 첫 번째 사기집단으로 매도했다.

이 매체는 5·18 유공자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체”로 규정하며 “유공자가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고 5·18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검은 셔츠’들이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거나 고소장을 보낸다”고 적시했다.

5·18유공자와 함께 제주4·3항쟁희생자는 “공산폭도 사령관, 인민

군, 살인방화범, 사형수, 탈옥범, 생존자까지 대거 희생자로 등재돼 있고 양민피해자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유공자는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거론하며 “남로당원 김일성 대학 강사, 평양민보 주필 등이 유공자로 선정됐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선정된 것이다”며 사기집단으로 평가했다.

이후 공청회를 하루 앞둔 7일에는 ‘북한군 개입 주장’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의 칼럼과 성명서를 보도했다.

공청회가 끝나고서는 ‘광주 시민 위해 진실 밝혀야’ 5·18 논쟁 치열할수록 좋다 ‘광주5·18은 괴물이다’ ‘진면 제조사하라’ 등의 기사를 하루 2~3꼭지씩 생산하며 5·18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여친 행세로 남성들 돈 가로챘 20대 구속

여대생 행세를 하며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환심을 사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채팅 앱에서 여대생 행세로 남성들의 환심을 얻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B(26)씨 등 20~30대 남성 6명에게 거짓 구애를 하며 환심을 얻은 뒤 총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의 얼굴·신체사진을 이용, 자신을 20대 초반 여대생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등에게 ‘보고 싶다’, ‘사귀고 싶다’고 호감을 표현하며 생활비·병원비·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거짓으로 만든 신분증·여성 인증 글 등을 보여주거나, 피해자들이 건 전화를 받지 않은 뒤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미개통 휴대전화로 공용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A씨를 실제 여자친구로 생각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 “도박 빚으로 집에서 쫓겨난 뒤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범행했다.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지난 9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도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거작업하던 30대 미화원 차에 치여 경상

12일 오전 7시 3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대형마트 앞 편도 5차선 도로에 정차 중인 청소차량에서 내리던 미화원 A(35)씨가 B(63·여)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려고 청소차량에서 5차선 옆 갓길 쪽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급정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 페인트 가게서 불...주민 긴급대피

12일 오전 5시 10분께 여수시 신기동 2층 상가건물 내 페인트 가게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1·2층 약 290㎡가 모두 탔으며, 가게 내 인화물질이 타면서 발생한 폭발음에 놀란 주민 15명이 긴급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아들 달래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입건

1살된 아들을 실수로 바다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과실치사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두 손으로 들고 위 아래로 흔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에 떨어진 B군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